

북중 관계 회복의 배경과 의미

김정균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 근 북중 관계에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반전은 상호 빈번한 인사 교류와 중국의 대북 지원책 발표 등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그동안 북중 관계는 1992년 한중 수교이후 소원해지기 시작하여, 1994년 중국의 대북 식량 지원 중단 조치로 냉각기에 접어들었으며, 同年 11월 李鵬 총리의 방한으로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었다.

이렇게 소원해 있던 관계가 김일성 사망 2주기에 즈음한 「朝中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 체결 35주년(7월 11일)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중국친선대표단」 대표로 방북하여 북한 고위층과 연쇄 접촉을 가졌던 국무원의 羅幹 비서장은 지난 7월초 북한에 10만 톤의 식량을 무상 제공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했다. 아울러 중국은 공산권 국가간 무역 관행이었던 「우호가격제」를 부활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향후 5년간 북한에 식량, 석유 등을 대량 지원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조치를 뒷받침하듯, 중국의 江澤民 주석은 지난 7월 11일 김정일과 교환한 축전에서 “中朝 친선을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확고 부동한 방침”임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중국을 방문한 金潤赫 부총리 등 북한친선대표단을 江주석과 李鵬 총리가 잇달아 만난 것도 북중 관계의 새로운 방향 전환을 대변하고 있다.

북중간의 화해 분위기는 군사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86년 이후 북한의 군사 교류 요청을 거절해 온 중국 정부는 최근 북해 함대 사령관 王繼英의 인솔하에 중국 해군 함대를 파견하여 남포항을 방문케 했으며, 이때 중국측은 崔光 인민무력부장, 趙明祿 인민무력부 총정치국장, 金光鎮 인민무력부 제 1 부부장 등 북한측 군 고위층과 군사 유대를 과시한 바 있다.

최근 북중간에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현상은 지난 몇년 동안 지속되어 온 중국의 대북 관에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그 배경은 크

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경제 사정 악화에 따른 중국의 對북한 시각 변화이다.

1990년 이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오던 북한 경제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김일성 사망 이후 더욱 악화되었으며, 특히 최근 2년 연속의 대홍수로 인한 식량난은 외화난, 에너지난이 겹친 총체적인 경제 위기로 확대되어 김정일 정권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국정 최대 목표인 성공적인 개혁·개방을 지속시키기 위해 안정된 주변 환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鄧小平 사망 이후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요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조기 붕괴로 한반도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특히 경제난으로 인한 김정일 정권의 급작스런 와해는 중국의 안정적인 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 속에 중국은 북한이 빠른 시일 내 식량난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정권 붕괴의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식량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어서 북한 주민들도 굶주림에 혼란이 되었을 것이지만, 식량난이 군인들의 생존

까지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진다면 김정일 정권을 위협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국무원 고위 관계자의 최근 발언은 “북조선은 김정일 체제가 공고히 유지되고 있으며, 식량난으로 체제가 붕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종전의 對북관을 수정하는 발언으로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잘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최근 북중 관계 개선은 한계 상황에 이른 북한 경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구소련과 동구 국가들처럼 북한의 경제 위기가 체제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아 보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둘째, 동아시아를 배경으로 형성되어 있는美中 관계라는 큰 틀 속에서 볼 때, 북한의 對美 접근 가속화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들 수 있다.

북한은 80년대 중반부터 친선 평화를 내세워 자본주의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미국과의 「중심 고리」를 연결하지 않고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對美 관계 개선에 주력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북한의 노력은 나름대로 결실을 맺어, 북미 관계를 상호연락대표부 개설을 위한 전 단계까지 끌어 올려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무엇보다도 미국이 북한과 상호연락대표부 개설을 계기로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쌀 지원 등과 같은 경제적인 지

원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면, 한반도에 대한 그들의 발언권이 그만큼 약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즉, 북중 관계가 소원한 틈에 북한이 미국측 對中 전략의 전초기지화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위기감은 작년 미국과 베트남의 수교, 금년 4월 「美日 新안보 공동 선언」을 체결한 일본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인 입장 표명, 양안 사태와 관련된 對美 태도 등을 연계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시말해서, 미국의 對동북아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북경 고위층 내에 對美 정치·경제적 접근이 활발한 북한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점차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중국은 북한에 대한 더 이상의 방치는 자신들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두가지 분석 내용에서 볼 때, 지금 중국은 대북 정책에 변화를 기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 조치는 행동으로 옮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한마디로 김일성 정권 붕괴 방지와 북한의 對美 접근에 대한 견제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나아가 안정된 주변 환경 유지와 對美 견제에 이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북한은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애매한 존재로 볼

수 있다.

성공적인 개혁·개방을 통한 정권 안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중국 외교의 본질, 對 남북한 양면 전술이라는 對한반도 정책의 실제, 구소련 붕괴 이후 미국과의 동아시아 지역내 주도권 확보를 둘러싼 중국의 태도 등을 종합해서 보면, 최근 중국의 대북 정책은 일시적이며 방어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시적 의미란, 최근 중국의 대북 관계 개선이 북한을 이념적 동조자, 자국 안보를 위한 완충국, 한국 경제와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함이지, 이같은 필요성이 사라질 무렵에는 언제라도 북한의 존재를 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또한 방어적인 의미란,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미국 요인을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번 관계 개선 역시 미국의 對中 공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은 한국이 정치·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에서 북한을 흡수 통일해버리는 것도 자국의 이익에 전혀 득이 될 게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남북한과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동북아 지역내 최대한의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실익을 지속적으로 확대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동아시아 내 국제 역학 관계에 있어서 美中 관계가 주요 변수이며, 북중 관계는 어디까지나 여러

종속 변수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최근 미국과 「미일 新안보 조약」 협정을 맺은 일본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인 시각이나, 금년초 미사일 사건으로 얼룩진 양안 관계의 소용돌이 속에 드러난 중국의 對美 태도에서 이미 증명되고 있다.

흔히 세상에는 표면의 변화가 이면의 속성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북한은 냉정한 국제 관계를 직시해야 하며, 경제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이념도 아니며, 중국이나 미국이 아님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국,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곳은 남한뿐이라는 사실을 북한 고위층은 직시하고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남한이 이미 북한의 3번째로 큰 교역 대상으로 북한에 가장 많은 외화불 제공하는 있다는 사실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1995년 현재 통관 기준으로 대북 반출 6,443만 달러, 대북 반입 2억 2,285만 달러로 북한은 1억 5,842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지금 북한은 미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적인 압박을 제거하면 모든 것이 해결 될 것으로 믿고 있지만, 미국의 경제적 제재가 없어지면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한 남한 경제의 가치와 남한 기업들 도움의 필요성은 더욱 높

아질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외국 자본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도 더욱더 부각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자신들이 겪고있는 경제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키는 남한에서 찾아야 한다. 남한이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최대 투자자일 뿐만 아니라 북한 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 최대 시장입은 배척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울러 북측 당국자들은 북한 경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은 북한이 세계 경제에 적극 참여할 때 새로운 사업 기회가 있는 것으로 믿고 있지, 북한을 무상 원조와 무상 공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상의 맥락에서 북한은 중국이 언제까지나 자신들의 후원자가 될 수 없다는 국제 관계의 냉정함을 재삼 명심하고 남한의 존재 가치에 대해 재고하기를 기대한다. 